

신이식 실패 후 투석 방법이 환자생존율에 미치는 영향

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신장연구소¹, 윤정수 내과²

강건우¹ · 박지혜¹ · 황은아¹ · 한승엽¹ · 박성배¹ · 김현철¹ · 윤정수²

Impact of Dialysis Modality on Survival after Renal Allograft Failure

Gun Woo Kang¹, Ji Hye Park¹, Eun Ah Hwang¹, Seung Yeup Han¹
Sung Bae Park¹, Hyun Chul Kim¹, Jung Soo Yoon²

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,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, Keimyung University Kidney Institute¹
Yoon jung-soo Clinic²

배 경: 최근 강력한 면역억제제의 개발로 신장이식 후 급성거부반응의 빈도가 현저히 감소하여 1년 이식신장 생존율이 90% 이상으로 향상되었다. 그러나 초기 이식신장 생존율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이식 후 약 25년이 경과하는 동안 40%이상에서 이식신 소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이식신 소실이 발생하는 경우 생명유지를 위해 투석치료로 전환이 필요하게 되는데, 이때 결정되는 투석 방법이 환자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. 연구자들은 신 이식 실패 후 투석 방법이 환자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.

방 법: 1982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동산병원에서 신장이식을 시행받은 환자들 중 이식신 소실로 투석치료로 전환한 18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으며 혈액 투석으로 전환한 환자군(혈액투석군)과 복막 투석으로 전환한 환자군(복막투석군)으로 나누어 두 군의 임상적 특징 및 예후를 비교하였다.

결 과: 대상환자의 이식 당시 평균 연령은 39.0 ± 11.4 세, 남녀비는 2.9:1이었다. 이식신 소실 후, 145예가 혈액투석으로 전환하였고, 37예는 복막투석으로 전환하였다. 이식신 소실 후 평균 69.1개월간 추적이 가능하였으며 추적기간 동안 23예(12.6%)가 사망하였다. 혈액투석군과 복막투석군의 연령은 32.6 ± 10.2 세와 33.5 ± 10.0 세, 남녀비는 2.8:1과 3.1:1, 추적기간은 65.3 ± 62.9 개월과 83.7 ± 79.0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사망한 23예 중 혈액투석군이 혈액투석군에서 16예(11%), 복막투석군이 7예(8.9%)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. 추적 기간 중 이식신 절제술은 총 24예에서 시행하였으며, 혈액투석군 20예(13.7%), 복막투석군 4예(10.8%)로 두 군간에 차이는 없었다. 이식신 소실 후 생존기간은 1년 및 3년 환자 생존율이 혈액투석군 94.8%와 88.9%, 복막투석군 91.2%와 84.4%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

결 론: 신이식 실패 후 투석치료로 전환하는 환자에서 투석 방법에 따른 환자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었다. 본 연구에서는 복막투석 환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향후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.

Key Words: 투석 방법, 생존, 신이식 실패

Dialysis modality, Survival, Renal allograft failure